

공공 빅데이터 분석·활용으로 국민의 삶의질을 개선하라!

“2019 데이터십 해커톤!!”

Public oriented
Bigdata Analyst
Training Course

BIG DATA

15 조

장애인 안전 지도 개발

현황 및 사례
조사서

2019.08.16

PM : 이준형
조원: 김윤화(researcher)
김혜린(산출물)
박수빈(발표자)
박종건(데이터분석)
전수림(데이터분석)
황희(데이터분석)

사례 1 | 장애인의 사고 위험률

장애인과 전체인구의 사고발생 비교(2012)

(단위: %)

사고발생 원인	장애인	전체인구
운수사고(교통사고)	19.8	93.9
추락(떨어짐)/미끄러짐	50.2	1.1
기타	30	5
합계	100	100
사고자 수(천 명)	205	360
장애인/인구 수(천 명)	2,646	50,747
사고발생률(%)	7.7	0.7

주: 1) 장애인 사고발생 수는 설문조사에 근거한 추정치인 반면, 전체인구는 실적치임
 2) 전체인구의 운수사고(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과 철도사고 포함
 자료: 장애인 실태조사(2014); 국민안전처(2015), 「2014 재난연감」

✓ 일상생활에서 높은 사고 위험

- 전체 인구보다 훨씬 높은 사고 발생률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경험

(단위: %)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입학 · 전학	유치원(보육시설)	27.1	취업		35.8
	초등학교	38.8	직장 생활	소득	23.9
	중학교	31.6		동료와의 관계	20.0
	고등학교	25.1		승진	13.3
	대학교	12.5	운전면허 취득 시		10.2
학교 생활	교사로부터	18.7	보험제도 계약 시		45.4
	또래학생으로부터	47.1	의료기관 이용 시		4.6
	학부모로부터	13.7	정보통신 이용 시		1.9
결혼		16.4	지역사회생활		7.3

자료: 장애인 실태조사(2014)

✓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보험 제도 부족.

→ 민간 보험 가입 비율 33%에 불과
 (우리나라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 73.4%)

사례 2 | 부족한 장애인 보호구역

방치된 '장애인 안전'...서울 631곳 중 보호구역 지정 7곳뿐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입력 : 2019.07.22 06:00 | 수정 : 2019.07

전국에도 90곳 불과...'교통약자' 사고 위험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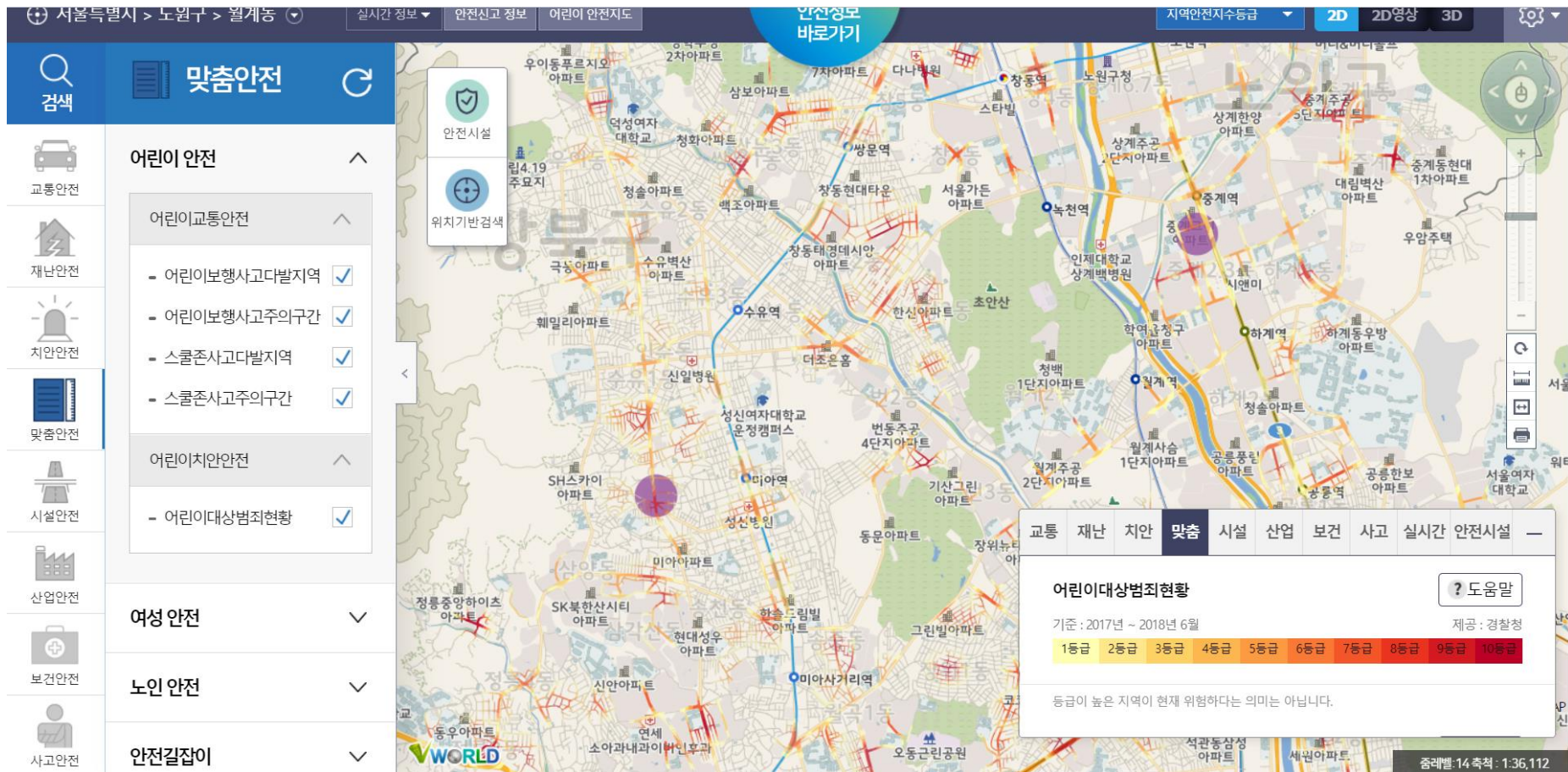
서울시내 장애인 보호구역은 7개뿐이다(가운데 지도). 그나마 불법 주정차 차량, 장애인 배려 없이 빠르게 달리는 차량 때문에 장애인의 이동권은 위협받는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 서울 전역에 7곳 뿐인 장애인 보호구역
서울의 장애인 시설 631곳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
(어린이 보호구역: 1732곳, 노인 보호구역: 123곳)

사회 많이 논

- 1 '제주도 : 자 엄벌'
- 2 심란해진 해하지민
- 3 재산 56'

사례 1 | 생활안전지도 - 어린이 안전



✓ 장애인과 같이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어린이를 위한 생활안전 지도가 제공되고 있음.

사례 2 | 휠체어 네비게이션 앱



✓ 어플리케이션 개발

스타트업인 '인에이블'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장애물 때문에 인도보다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사고율도 높다는 점에 착안해 휠체어 네비게이션 앱을 만들었다.

인에이블은 전동휠체어가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이동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SK텔레콤의 유동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인구 밀집 지역은 우회하도록 경로를 설정했다.

사례 3 | 구글의 휠체어 접근 정보 표시

뉴스 홈 > 국제

구글 지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해 '휠체어 접근' 정보 표시



✓ 구글의 휠체어 접근 정보 표시

구글은 2016년부터 사용자들이 휠체어 접근 가능 여부에 대한 관련 정보를 지도에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이에 자발적으로 나선 사용자들은 식당이나 건물, 도로 등 특정 장소의 휠체어 이동권 정보를 제공해왔다.

현재 해당 서비스는 미국에서만 지원될 예정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구글 직원이 업무 외 20%의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덕분에 탄생했다.